

이번주 큐티 (Quite Time)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

※ 말씀암송: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 본문말씀: 요한복음 19:1-16

- 1.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 2.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 3.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어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 4.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 5.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 6.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 7.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 8.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 9.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 10.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 11.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 12.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 13.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 14.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계속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16.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 묵상하기

빌라도는 시종일관 진실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 사람들을 의식해 채찍질하게 했고, 풀어줄 권한이 있는데도 사람들의 극단적인 반응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결정적인 인물이 되고 맙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안에도 빌라도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타협하는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를 매섭게 몰아붙였듯이 악한 세력도 언제든지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난처한 상황으로 시험하겠지만, 진리가 아니라면 물러서지도 타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 도전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 적용하기

나도 빌라도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자니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고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고, 대세를 따르자니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말씀에서 해답을 찾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든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 생각하기

✓빌라도처럼 내가 자주 타협하는 현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상황에 다시 처한다면 나의 선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유대 사람들처럼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려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일, 극단적인 상황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보세요.

※※ 청소년부 광고 ※※

- 사순절을 맞아 복음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28장), 마가복음(16장), 누가복음(24장), 요한복음(21장) 중 각자 한 권씩 선택해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정하셨죠?ㅎ 참고로 전도사님은 누가복음^^ 일주일에 3장에서 5장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도전! 도전!!)
기간은 3월 한 달간, 부활 주일(4월 12일) 서상합니다.